

익산, 대한민국 XR산업 선도 ‘익산 방문의 해’ 비전제시

홀로그램·XR분야 한·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홀로그램 산업 메카 익산시가 한·일 연구 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XR(확장현실)산업 트렌드를 선도한다. 시는 원천기술 개발, 창업 지원 등 산·학·연 기반이 탄탄한 원광대와 함께 한·일 홀로그램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국내 XR 산업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에서 DHP 2022(The 12th Korea-Japan Workshop on Digital Holography and Information Photonics)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DHP는 홀로그램과 XR 광전자 분야의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이 양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 연구 교류의 장이다.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원광대학교에서 12회를 맞이했다.

개회식에 참석해 한일 국제 공동 협력에 따른 학술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학술회의 기간 동안에 1편의 기초 연설과 20여편의 초청논문, 그리고 20여 편의 학생 논문이 발표되었고, 원광대학교 XR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과 연구소 등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특히 ‘증강현실에서의 시각적 인식’, ‘홀로그래픽 글래스 디스플레이를 위한 답러닝 기술 및 최적화’ 등 기술혁신을 이끄는 다수 연구 발표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일 양국의 홀로그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심도 깊은 접근으로 홀로그램 분야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원광대를 중심으로 한·일 홀로그램 연구의 허브이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중추적 역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 오피니언리더, 외부전문가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익산시가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2023 익산 방문의 해 관광 사업 등 시장 현안에 관한 현장감있는 정책 제안과 미래 비전 자문을 듣는다.

시는 20일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박사, 언론인 시민단체 리더 중심의 외부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병렬) 하반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22년 상반기 회의 경과보고, 민선 8기 주요 정책(공약)사업 설명, 정책자문위원 제안사업 설명 및 토론, 시장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및 정책 제안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 현안 및 중점 과제를 안건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2023 익산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촉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병렬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들은 관광객 유치 촉진 사업에 위원들이 관광객 유치 촉진 사업, ‘익산관광 활성화 사업’,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500만나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잡자고’ 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설명과 열린 토론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각 분야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및 정책 제안, 정책자문위원들의 자체 사업제안 등이 활발히 제시되고 자문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제안들을 시장에 적극 반영해 익산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며 “아울러 2023 익산 방문의 해 사업에 위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를 플라잉카 산업의 메카로”

환경부 군산시의원, 5분 발언서

군산시의회 환경부 의원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군산시를 플라잉카 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며 도로와 하늘 모두를 다닐 수 있는 플라잉카가 차세대 운송수단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며 “플라잉카는 기존의 도심 혼잡에 대비한 단순한 운송의 개념을 뛰어넘어 관광, 레저, 물류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300여 개가 넘는 글자의 글로벌 기업들이 플라잉카 분야의 연구개발에 뛰어들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 한화, 대한항공, SK텔레콤 등의 대기업들이 플라잉카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미 슬로브키아에서는 70km를 35분 만에 주파하는 플라잉카가 개발되었고, 에어버스는 4인용 에어택시 ‘시티 에어버스’를 선보이는 등 플라잉카의 상용화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고전 스탠다드 전 세계 플라잉카 시장의 규모를 2030년에는 3,320억 달러(한화 약 385조 원), 2040

위한 인프라도 이미 조성된 상태”로 “이러한 제도적 근거 및 인프라, 지적 이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플라잉카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판이다”고 토론했다.

아울러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대전 등의 광역 지자체는 물론이고, 전주, 남원 등 같은 전라북도 내 기초 지자체들도 플라잉카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사활을 걸고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에 비해, 군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향후 모빌리티 사업의 중심이 될 플라잉카 협의체인 UAM-팀 코리아에 참여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무능하고 소극적인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하였다.

환경부 의원은 “군산이 플라잉카 산업의 메카가 된다면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과 교육을 연계하여 지역 내 질 좋은 일자리 공급에 기여하는 물론, 새만금 국제공항, 군산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대야 철도와 더불어 군산시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교통 중심도시와 동아시아 新 물류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며 “플라잉카 산업에 대해 군산시 집행부가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구축

군산시가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 ‘빠기’ 도입으로 주민 편의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필름(스티커) 구매없이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대형폐기물 간편서비스가 오는 2023년 상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대형폐기물 배출시 그동안에는 폐기물필름(스티커)이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처리됐지만 모바일 앱 도입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편의성이 증대된다.

또 폐기물 수거 신청 정보는 실시간

으로 직영/대행업체에 전달되며 혼자 버리기 어렵거나 분리 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에는 민간업체와 연계한 유상 서비스(운반비용 자부담 발생)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재활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을 매입하거나 재판매하는 서비스를 통해 리사이클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해당 업체와 업무 협약을 실시하고 담당자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농가소득향상 농촌지도 ‘전북 우수’

익산시가 혁신 농촌지도사업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이끌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전북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022년 농촌지도사업 종합 평가회에서 자원경영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사업비 7,000만원과 시상금 15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업무처리와 농촌지도사업결과를 평가하며 우수 사례연구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센터는 농업인 가공 및 체험 등 소독사업을 통해 농업인 평균소득 전년 대비 10% 증가와 사업연계 창업 33개소, 일자리 창출 150명 등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및 가공사업장 창업 지원사업으로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가공제품 개발에서 인증, 판로 개척까지 소규모 농부 CEO를 배출해 농업 창업문화를 만들었다.

또한 농업과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을 접목한 치유농업 및 농촌 체험 활성화로 6차 산업화로 소득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 밖에도 농업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 및 품질향상 경쟁력 강화, 등 한 해 동안 17개 사업사업을 30개소 추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 청년시청, 다이로운 청년학교 프로그램 인기

익산 청년시청에서 열린 청년들의 문화 프로그램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지난 달 2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진행된 ‘다이로운 청년학교’는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플라잉카, 디지털학과, 가족공예학과, 팻간스학과로 구성되어 총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만 5세 이상의 자녀와 함께 하는 디지털학과 뽕이뽕반, 부모님 한 분과 함께 커피이템을 만드는 가족공예학과를 진행하여 청년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다이로운 청년학교’에 참여한 한 청년은 “평소에 관심있던 문화 프로그램이 생겨 가족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내년 상반기 공공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는 고용정책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지원을 위해 2023년 상반기 공공일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인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9명, 공공근로사업 69명으로 총 11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5일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4세 이하(1958.02.01. ~ 2005.02.01.출생)의 근로능력이 있는 군산시민으로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이며,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로 참여자는 1일 6시간씩 주 30시간을 근무한다. 임금은 시급 9,620원과 부대비 5,000원 및 주휴·연차수당이 부여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국가 및 일반근로자급 정비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